

自我란 무엇인가

自我의 哲學的 考察(上)

安浩相

理性의 判斷은 『사람은 나(我)가 本位니라』고 한다.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行하는것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며 또 나로부터 된다. 本能的 動作과 有意的 行爲 그것은 모두가 有意識 中 無意識중 『나 때문』(爲我)이며 또 『나로부터』(自我로)서다. 못난이 잘난 이 無識者 有識者 庶人과 聖人 어떤 □□의 사람을 無論하고 그들에게는 『自我』가 本位다. 殺人爲身뿐만 아니라, 殺身爲人이 또한 그 根本 動機와 終極 目標는 自我때문이다. 殺身爲人이 亦是 爲身爲我라는 것은 그러나 두 가지 뜻을 갖었다. 첫째로는

公衆을 爲하며 社會를 爲해서 自己를 犧牲함은 오직 自己의 功名때문이다. 만일 自身의 犧牲이 自己의 功名の 招來가 아니라면 殺身爲人함이 참으로 드므리라. 그러나 이와 같은 日常心理學的 解釋밖에 殺身爲人이 亦是爲我라는 것을 또한 다르게 解釋할 수 있다. 왜그러냐 하면 『나와 남』(我他)이 根本에 들어가선 같은 것인 때문이다.

우리는 나는 오직 나만으로서 또 남은 오직 남만으로서 잇는 줄 믿는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나와 남』의 本質觀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나만으로서 또 남은 오직 남만으로서 잇는 法이 없다. 내가 곧 남이오. 남이 곧 나다. 나는 남을 보고 남이라 하지만 남은 나를 보고 또한 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나며, 남의 남으로 『나와 남』이다. 뿐만 아니라 남이 나를 남이라 하니, 남은 남으로 서인 나에 對해서 또한 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또한 『나와 남』이다. 이것을 본다면 爲身爲我뿐만 아니라 殺身殺我가 亦是 □□□ □□□□□ 되는 것이다. 왜그러냐면 我를 爲함에도 我가 없이는 我를爲할 수가 없지만, 我를 殺함에 亦是 我가 없이는 我를 殺할 수가 없는 때문이다. 自我는 萬事萬物의 根本이오. 此界彼界의 原理다.

우리는 여계서 두 種類의 『나』를 區別할수 잇는데, 그 짓은 곧 오직 나만으로서인 『나』와 또 나와 너와 남의 속에까지 들어 잇는 그 『나』다. 다시 말

하면 나의 個人만으로서인 個別的 自我와 또 우리들에 共通한 普遍的 自我를 區別할수있다. 그러므로 自我는 우리가 普通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과 같이 그러케 단순한 것은 아니다. 自我는 제 自身이 벌써 矛盾투성이며 矛盾구덩이다. 自我의 이 矛盾의 解決이 歷代哲人들의 努力이오. 矛盾의 이 自我의 發展이 곧 人類史의 創造다. 알고도 모를 그 自我 이것의 辨證的 發展過程을 밝히 고저 해서 나는 여계 一, 奴隸的 自我 二, 反省的 自我 三, 自由의 自我 이 셋 契機들을 잠간 考察하려 한다. 이 『自我의 考察』을 나는 다시 『自我의 現象學』이라고 이름 붙이며 □ 『現象 等』의 概念은 오즉 □□의 意味로서 解釋할것이다.

一, 奴隸的 自我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사람이 아니라고도 한다. 사람의 이 矛盾을 우리는 日常生活에서 늘 經驗한다. 사람은 사람인 同時에 또 다시 사람이 아닌 지라, 사람의 自體가 벌써 人과 非人의 混合이다. 그러면 사람의 속에서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또 사람으로 서인 그 사람은 무엇이며, 또 사람이 어찌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 사람 답은 所然은 다음에 말하려니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原因은 오직 사람의 自然的 存在의 奴隸性 때문이며 또 이 奴隸性은 사람으로서 □□□□必然的 存在다.

그러면 사람은 왜 奴隸인가? 고것은 다음의 理由를 갖은 때문이라고 나는 主張코져 한다. 사람은 모든 다른 自然物 體와 같이 한 空間擴充이다. 그리고 또 有機的인지라, 그는 한 生物이며 任意대로 움죽이는지라, 그는 한 動物이다. 사람은 自然物과 같이 自然의 法則과 外界의 原因의 支配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의 構造는 細密하며 그의 感官은 銳敏한지라, 사람은 一射光線과 一適의 雨露의 作用까지도 다른 有生無生의 自然物보담 더 깊이 感覺하고있다. 사람의 生生成成은 自然의 惠澤이오. 사람의 生死存亡은 自然의 所關이다. 사람은 自然으로 나왔다가 自然으로 돌아진다. 來自然 歸自然은 萬物의 本則이오. 人生의 運命이다.

사람이 받는 影響이 어찌 自然界로부터 뿐이라! 사람은 血肉을 갖은 以外에 또한 意識을 갖었다. 그의 意識的 作用은 다른 動物들의 그것보담 더 復雜하며 더 廣大하다. 그는 無限한 欲望과 理想을 품고 왔다. 사람은 다른 動物과 같이 單純이 제의 自然的 存在의 維持만으로도 아니라 도리어 제의 欲望의 達成과 또 제의 理想의 實現에서 제의 참된 滿足을 느끼게 된다. 欲望의 達成과 理想의 實現은 반드시 많은 手段과 條件을 要한다. 그러나 이 手段과 條件의 大部分은 사람의 自身內가 아니라 도리어 自身外에 存在한것이다.

理想의 現實의 條件 뿐만 아니라 理想의 現實의 場所가 또한 自我內가 아니라 오직 自我外 곧 사람이 모여 사는 社會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動物보담 한 獨特한 社會를 要하며 또 오직 이 社會의 基礎우에서와 이 社會의 條件만에서 제의 活動과 事行이 될 것이다. 사람의 一動一靜은 그러므로 社會的으로 規定해이었다. 사람의 肉體的 行動은 自然으로부터 規定되었으며 사람의 意識的 行爲는 社會로부터 規定되었다. 제의 存在와 意識이 自然과 社會로부터 規定된 그 사람이란 자는 社會의 生物인 同時에 또한 社會의 産物이다. 사람은 自然과 社會의 服從者로서 環境의 奴隸다.